



㈜에코앤드림은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 등과 투자협약을 맺은 뒤 새만금 산업단지 4만5,000평 부지에 신규 공장 설립에 착수, 11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새만금産 이차전지 핵심소재 나온다

〈산〉

에코앤드림, 전북도 등과 투자협약 2년여만에 신공장 준공... 연간 3만t 전구체 생산

새만금에 동지를 틈 이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이 투자협약 이후 2년여만에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핵심소재 생산에 들어간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에코앤드림은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 등과 투자협약을 맺은 뒤 새만금 산업단지 4만5,000평 부지에 신규 공장 설립에 착수, 11일 준공했다.

이번에 준공된 신공장 새만금 캠퍼스에서는 이차전지 양극재인 전구체를 연간 3만톤의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청주공장 생산력 5천톤과 합쳐 총 3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춰 연간 7,00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에코앤드림 대표 이사를 비롯해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유관업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도약을 축하했다.

특히, 에코앤드림 새만금캠퍼스에서 생산되는 전구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최초로 생산되는 핵심 소재

여서 첨단산업 소재의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에코앤드림 새만금캠퍼스 준공은 새만금이 명실상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도약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에코앤드림 김민용 대표는 "새만금 캠퍼스 준공은 에코앤드림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범주지 않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바 있으며, (주)에코앤드림과 같은 이차전지 연관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 용지 확보와 투자진흥지구 확대 등 기업 최우선의 정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미래신성장 동력이 될 (주)에코앤드림의 전구체 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주)에코앤드림이 군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세계적인 소재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소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 전북의 혁신모델이 돼 주길 기대한다"며, "세계 어디서든 '전구체 하면 에코앤드림'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가 세심하고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군산=이재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립길

올해 국가유산 보수정비 본격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총 5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98개소의 국가유산을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국가유산 보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방지시설 구축,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유산 돌봄사업 확대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과 보존을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전년 대비 43억원을 추가 확보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정비, 완주 송광사 종루 해체보수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49개소와 전주 삼경사 대웅전 노후 전기설비 정비 등 도지정 문화유산 149개소가 주요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국가유산 보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상의 일이 담긴 소중한 국가유산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물론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기념

전북자치도,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진행

10만원 이상 기부자 대상 추가 혜택... 특산품 증정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북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대상자는 전북자치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며,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및 답례품까지 신청 완료 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총 48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에게는 △전북 유명 맛집 식사권(백년가게 13개 업체) △친환경 돌솥 △김부각 등 다양한 전북 특산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4월 3일에 발표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기부지(www.ilovegohyang.go.kr), 은행권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액티부키(농고팜)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 축협 대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자발적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해 전북의 미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헌정질서 수호·경제 안정’

민주 도당, 오늘 윤석열 파면 촉구 총집결 당원결의대회

“헌정 위기·경제 불안 해소 위한 정치적 변화 요구 계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오후 5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정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를 포함한 당원 1,000여명이 참여해,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요구와 함께 헌정질서 수호 및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국헌문란 및 경제파탄의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한 취지 아래 진행된다.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무대에서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헌법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이 체감한 헌정 위기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이 신속히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당은 결의대회 종료 후, 각 지역 시·군의장단이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후속 조치를 예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와 저항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영호남 교통 중심지 남원이 함께합니다.



2036
JEONJU